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언약을 주신 하나님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2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3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4 여호와께서 산에서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불 속에서 말씀하셨다. 5 그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려고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 있었다. 너희가 그 불을 두려워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십계명 : 제 1-3계명

6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7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8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9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삼사 대 자손에까지 갚고 10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1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3 묵상하기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과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온 역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계속되는 나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며 폄하하는 성경을, 오늘 내가 간절히 묵상하고 되새기며 삶에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1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약속들은 내 삶에서 계속 성취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 첫 명령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그리스도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다른 길,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를 편협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수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내가 의지할 분임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비합리적이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역사만이 아닌 지금 나의 이야기, 나의 역사로 묵상하기 위해 내가 바로잡아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제 삶에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십계명 : 제 4계명

1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3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14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15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꼭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십계명 : 제 5-10계명

16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될 것이다. 17 살인하지 말라. 18 간음하지 말라. 19 도둑질하지 말라. 20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21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3 묵상하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1-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6-15절). 제5-10계명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들입니다(16-21절). 이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명령이 아닌 하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비롯해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일상을 살아가고, 동시에 내 주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을 보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4 적용하기

세상은 온갖 범죄와 죄악이 날로 심해지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개인주의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남을 존중하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만큼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실천이 오늘 나의 일상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이지만, 특별히 일상을 멈추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드리는 예배에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나요?
-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만큼, 가정과 학교 등 여러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존중해주고 있나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증재를 요청하는 백성

22 이는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산에서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 너희 온 회중에 선포하신 명령이며 더 이상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판에 그것들을 기록해서 내게 주셨다. 23 너희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산에는 불이 붙었는데 너희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로 나아왔다. 24 그리고 너희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25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 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26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7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28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이 네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29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0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31 그러나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그 땅에서 그대로 따르게 하여라.' 32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3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3 묵상하기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은 큰 두려움과 충격 때문에 죽을까 염려했습니다(25-26절). 그래서 자신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겠으니 모세가 대신 말씀을 듣고 전달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두려워할 만큼 죄악 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되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32-33절).

4 적용하기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죄인이어서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그분의 말씀조차 너무 편안하게, 심지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친밀함을 넘어서 도를 넘고 있지는 않나요?
-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32절)는 말씀대로, 이런 저런 말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고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주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계명들을 잘 지켜 주님 뜻대로 영원히 잘되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말씀 순종에 따른 복

1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2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5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6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7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 8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목에 매고 네 이마에 둘러라. 9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 두라.

3 묵상하기

오늘 본문부터 25장까지는 모세가 출이집트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고 복잡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백성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2-3절). 즉,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5절)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새겨 주위에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6-9절). 사실, 관심 가는 것들과 사랑할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멸망이 아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삽니다.

4 적용하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 말을 늘 기억하고 말한 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나의 묵상이 그러한가요? 주신 말씀을 내내 묵상하고 어디를 가든 곱씹고 나누며 적용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나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옥죄고 힘겹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묵상하며 무엇을 깨달았나요?
- 나는 QT가 끝나는 즉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곤 하지 않나요?
오늘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기 위한 작은 실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제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여호와를 잊지 말라

10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11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12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13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14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네 주변의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서 그분께서 너희를 그 땅의 지면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16 너희는 맛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17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증언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18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3 묵상하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예비해놓으신 은혜는 엄청납니다. 그들은 아무 수고를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10-11절). 하지만 풍요롭고 배부르고 편할수록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스스로 주의하며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12절).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멸망하게도, 풍요롭게도 하시는 주권자'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절박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일을 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깨달았다면, 다시 스스로 삼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나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닌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时时때때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적전쟁은,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 위기의 때만큼이나 문제없이 편안할 때에도 치열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요즘 내가 즐겨 하는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인가요? 혹시 내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혹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이룬 것, 내 것이라 생각했던 적은 없나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늘 한결같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 섬기는 자녀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자녀에게 가르치라

20 장차 너희 아들들이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21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들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22 여호와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이집트와 바로와 그 온 집안에 내리셨다. 23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불러 들여 차지하게 하셨다. 24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25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기도' 로 마칩니다.